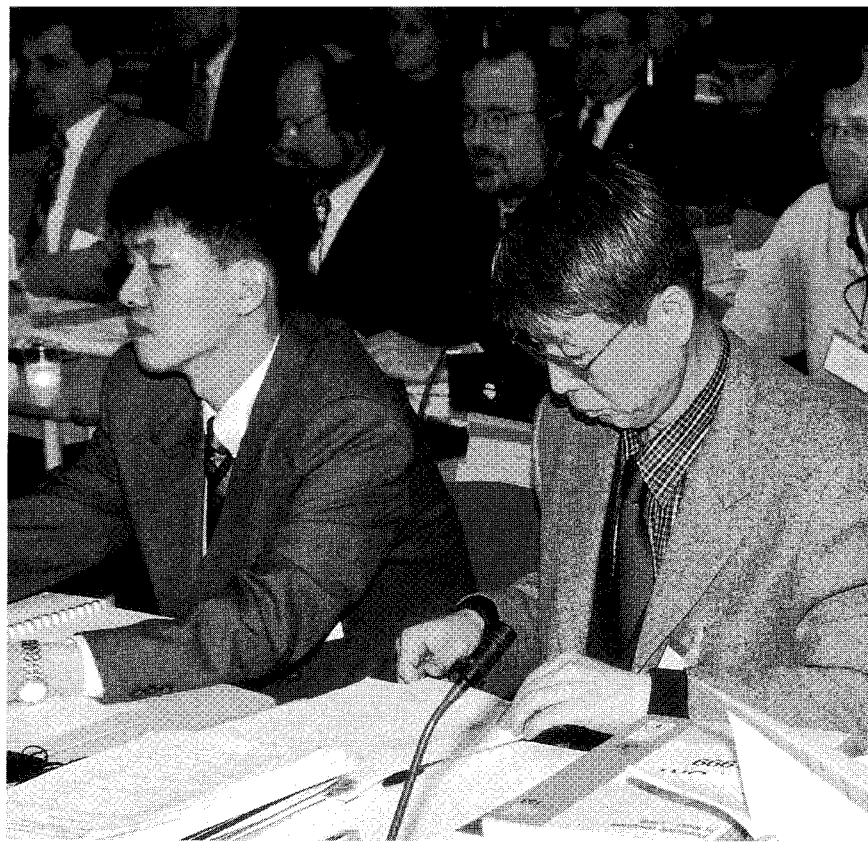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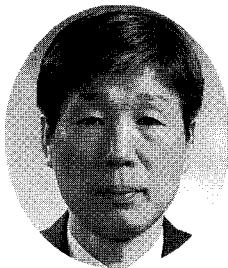
리포트

제 32차 잔류농약분과위원회를 다녀와서
Codex



‘CODEX 기준 · 지침’ 우리측 입장 반영 위해 최선을 다해야

전문가 양성 · 지속적 참가, 정보수집 및 주변국과 협상 공동대처



조형래
농림부 농업경제정책과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Congres Centrum에서는 제32차 Codex잔류농약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4개 회원국과 1개 옵저버 국가 및 14개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총 2백39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잔류농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벌인 뜨거운 토론의 장이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모두 3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이 국제교역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교역이 활성화 되고 국내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응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측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기준을 설정할 때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건이 비슷한 인접국가와 협상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우리측에 유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금번 잔류농약분과위에서 다루어진 의제중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살펴본다.

잔류농약의 섭취 검토

의제 요지는 △급성식이노출평가, 위해성 관리옵션 △잔류농약의 식이섭취를 예측하는 기준에 근거한 국제적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잔류농약섭취 연구 △가공과정연구 등이다. 주요 논의 결과는 급성평가를 위한 국제단기섭취평가량(IESTI) 등은 몇몇 국가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더 많은 국가의 자료가 필요하고 각국의 체중과 연령에 따른 주요식품 소비비율 및 소비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가공정보 수집을 위한 회람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급성식이노출평

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함으로써 우리측의 식품소비 형태가 국제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WHO 등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각국 및 세계표준식이섭취의 평가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평가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식품 및 사료중 MRL안 검토 농약/동물약품 동시사용 제제에 대한 MRL설정시 조화

의제요지를 보면 △JMPR/CCPR과 JECFA/CCRVDV간의 동시 검토물질의 조화 △용어정의의 조화 중 'meat'를 'muscle'로 변경안에 대한 논의 등이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장을 보면 'meat'를 'muscl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품목명은 실제 유통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JMPR은 JECFA와의 조화를 위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결과는 'Fat tissue', 'V'의 용어정의 및 '乳'의 용어정의 개정에 동의하고 JMPR과 JECFA에서 같은 품목, 잔류정의 물질의 MRL인 경우 ADI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더 높은 MRL치를 권장치로 한다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 회의는 농약에 대해 연구·평가하고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농약사용 방법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산물 소비량 차이로 잔류허용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기준설정 등이 회의의 쟁점이 된다.

WTO/SPS체제하에서 Codex기준 및 지침은 농축산물의 국제교역상 발생하는 국가간 분쟁의 권장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CCRVDF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JMPR과 JECFA간 잔류정의 차이점에 대한 조화는 case-by-case 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는데 합의했다. 즉 Meat와 muscle 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문가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필요(국립수의과 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류에서의 Camphechlor에 대한 EMRL설정 필요성

의제요지를 보면 △독일에서 제기한 어류에서 camphechlor EMRL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여 EMRL 설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등이다. 주요국 입장을 보면 독일은 어류에서 camphechlor의 EMRL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PTDI와 EMRL추천을 제안했다. 또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무역이나 위생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설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니터링 자료의 빈약함과 EMRL 설정 시기상조, 분석기준 개발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

다. 한편 JMPR/WHO합동 사무국은 독성연구 결과가 어류에 잔류된 Congener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면 독성 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과를 보면 재논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며 추가 자료 입수될 때까지 연기하였고 설정에 반대하는 국가가 많았다. 또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어 가까운 시일 안에 EMRL이 설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 MRL설정 검토

의제 요지는 △목록화된 200개 농약중 62농약에 대하여 논의하고 △8단계 또는 5/8단계로 설정된 농약(13종) △MRL 권장치가 취소된 농약(11종) 등이다.

Captan(007)

EC 참관인은 현재의 MRL 설정에 반대하고 GAP자료 문제제기, 동물사양 및 급성RD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은 배 등 3품목에 대한 MRL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JMPR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MRL초안을 6단계로 되돌렸다. 즉, 논의중인 기준이 국내기준보다 높으

므로 MRL설정을 보류시키거나 가능한 낮은 수준을 지정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때 현재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4-D(020)

남아공과 미국, 우루과이는 수확 후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네덜란드는 내장 가식부에서 간과 신장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과를 보면 감귤류에 대한 Codex MRL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며 卵 등을 5/8단계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기존 CXL은 삭제하며 포유동물고기 등 축산물은 5단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내 기준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0.05ppm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고기에서 0.2ppm, 닭고기에서 0.05ppm 설정안은 보류하거나 가능한 낮은 기준에서 설정되도록 차기회의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arbendazim(072), Benomyl(069), Thiophanate-methyl(077)

잔류 정의에서 3종을 carbendazim으로 표시할

것을 EC가 주장하였으나 차기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 농약의 잔류정의를 통일하는 것은 과학적·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차기회의에서 우리측은 잔류정의 통일안에 지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hlorpyrifos-methyl(090)

EC는 식이 섭취량 계산과 급성RfD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은 6ppm 제시 및 축적 위해분석이 끝날 때까지 MRL초안의 진행을 반대하였다. 그 결과 MRL 초안을 6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논의중인 MRL(쌀)이 국내기준보다 높으며, ADI에 비하여 높고 수출국에 유리하도록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기회의시 설정을 반대해야 될 것이다.

Aminomethylphosphonic acid(AMPA)(198)

미국은 GAP을 개정하고 유전자변형 옥수수에서 잔류는 미미하므로 진행을 반대했으며 그 결과 옥수수 등 3품목의 MRL 초안을 6단계로 되돌리고 차후에 논의하

기로 하였다. 최근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차후 논의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MRL 설정(DDT)

축산식품중 EMRL설정에 관한 문제로 현재 5단계로 5mg/kg안이 올라와 있으나 2000년 JMPR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2000년 JMPR 평가후로 연기되었다. 차기회의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될 항목이므로 JMPR의 검토결과를 신속히 입수하여 우리측 입장(1mg/kg 또는 3mg/kg)이 반영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찰 및 평가

동 분과위에서 설정중인 MRL은 수출입잔류검사시 SPS 협정에 의거 국제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출국과 수입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정보와 기술이 앞선 선진국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주요 식품섭취 비율 및

중량, 농약의 GAP, 잔류분석법, 잔류모니터링 조사결과, 관심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및 잔류시험 등 정밀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생산·분석한 후 CCPR/JMPR에 제출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신설·변경될 농약의 MRL이 총회(2001년 예정)통과 후에 국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석법을 확립하고 국내잔류허용기준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CODEX 농약 잔류분과위에서 검토중인 농약 및 검토 예정농약의 국내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자료를 수집, 국내산 및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탐색 조사와 분석법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회의를 대비하여 이번 회의의 단계별 진행에 대한 기관별 관련사항 검토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기관별 차기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01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농약정보**